

※※※ 알림글 ※※※

티스토리 블로거 "차삐라"입니다.
K리그클래식, K리그챌린지를 중심으로
내셔널리그, 대표팀 기록,
J리그 소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블로그로 이동

<http://chappira.tistory.com>

번역 중 오타,오역,의역 등이 있으니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각 페이지 하단에 원본 주소가 있으며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J.LEAGUE™ NEWS



스웨덴으로 해외캠프를 간 U-14 J리그선발(좌)과 태국에서 해외캠프를 실시한 U-13 J리그선발(우)

육성세대의 선수를 해외 캠프로 파견

U-14,U-13 J리그 선발이 각각 스웨덴, 태국 개최의 국제대회에 활약

J클럽 아카데미에 소속된 선수를 선발해 행하는 연례 해외캠프가, 7월부터 9월 여름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Gothia Cup에 출전한 U-14 J리그선발의 스웨덴 캠프를 시작으로, U-13선발은 태국에서 열린 2013 SUPERJUNIORS FOOTBALL CHAMPIONSHIP에 참가. 8월 하순부터는 U-16이 한국, U-15가 브라질로, 각각 해외캠프를 갔다.(자세한 사항은 다음호) 국제 시험 경험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해외문화를 접해,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의한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해외캠프. 선수들은 이번에도 역시, 익숙지 못한 환경아래에서 쌓은 귀중한 경험을 갖고 돌아왔다. (2~3페이지 관련기사)

J.LEAGUE™ TOP PARTNERS

J.LEAGUE™ 100 YEAR VISION PARTNER 	J.LEAGUE™ FAIRPLAY PARTNER 	LEAGUE CUP SPONSOR 	SUPER CUP SPONSOR 	J.LEAGUE™ OFFICIAL EQUIPMENT PARTNER 	LEAGUE™ OFFICIAL SUPPLIER 	J.LEAGUE™ OFFICIAL BROADCASTING PARTNER 	SPORTS PROMOTION PARTNER 	J.LEAGUE™ OFFICIAL TICKETING PARTNER

編集・発行 公益社団法人 日本プロサッカーリーグ



U-14 J리그선발 스웨덴 캠프

U-14 J리그선발은 Gothia Cup에서 패진격을 보였다. 조별예선을 3전 전승, 무실점이라는 성적으로 돌파해, 결승토너먼트 1,2,회전, 16강, 준준결승, 준결승도 상대팀에게 득점을 허용하지 않고 연습했다. 16강~준결승 3시합은, 하루에 소화하는 힘든 일정. 아침 5시45분에 기상, 연전의 피로도 얼굴에 나타나, 체력이 좋은 선수와의 시합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레벨이 높은 대전 속에서, 훌륭히 싸웠다. 국가연주, 대형영상장치의 선수소개등, 본격적인 국제시합의 분위기를 풍긴 결승에서는, 클럽아메리카(멕시코)와 대전. 기술,체력에서 뛰어나고,규칙도 착실한 팀에 1-6으로 패했지만, 1살위 선수들을 상대로 싸운 준우승은 훌륭한 성적. 음식과 세탁 편의를 봐주고, 열심히 응원한 현지 거주 일본인들도 “이 전통있는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해, J리그 선발은 정말 일본의 자랑”이라며, 칭찬을 했다.

写真提供: ベースボール・マガジン社



연상 선수들을 상대로 패진격을 연출, 훌륭하게 준우승 성적을 거뒀다.



U-13 J리그 선발 태국 캠프

U-13 J리그 선발은, 방콕, 존부리 두 시에서 개최된 2013 SUPERJUNIORS FOOTBALL CHAMPIONSHIP에 출전했다. 조별예선 첫경기는 10-0 대승으로 좋은 출발을 했지만, 제2경기에서는 체력에서 뛰어난 존부리FC에 1-6으로 완패. 그후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무더위 속에서 하루에 2경을 싸운 3,4경기는 모두 승리해, 3승1패의 2위 성적으로, 1,2위 팀에 의한 우승결정전에 출전을 확정했다. 우승을 걸고 대전한 것은 다시 존부리FC. 전반은 1-1로 비겼지만, 후반에 3골을 더해 3-1로 훌륭히 설욕. 결단식에서 정한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후보 선수들도 “지금까지 가장 좋은 준비를 할수있었다.”라며 말하는등, 전원이 따낸 우승이었다. 캠프 기간중은 더위에, 향신료가 들어간 식사에 고전하며, 갑작스런 빅오프시각 변경등 사건도 있었던 가운데, 팀이 하나가 된 결과를 올린 경험은, 선수들에게 큰 재산이 될 것이다.



귀국날에는 불교사원을 견학하고, 태국 전통문화의 일면을 접했다.



경기장에서 열심히 응원을 계속해준 지역서포터에 감사를 표하다



결승은 세계의 높은 수준을 아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



더운 기후 속,팀이 하나가 돼 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숙소에서 미팅. 시합 반성, 다음 시합을 위한 생각등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U-14 J리그선발 스웨덴캠프 참가 멤버

<스태프>

	氏名	所属
단장/감독	上野山 信行	Jリーグテクニカルダイレクター
코치	雨野 裕介	ガイナレ鳥取
GK코치	野田 晶生	大分トリニータ
트레이너	川合 宏明	奈良接骨院
주무	中村 聡	Jリーグ

<참가선수>

번호	氏名	클럽	번호	氏名	클럽
GK	櫻庭 立樹	コンサドーレ札幌		越智 英行	ジェフユナイテッド千葉
	高草木 天平	浦和レッズ		小林 幹	FC東京
DF	中川 創	柏レイソル		山田 康太	横浜F・マリノス
	櫻村 怜史	東京ヴェルディ		岡野 周太	サンフレッチェ広島
	伊従 啓太郎	川崎フロンターレ		森山 真伍	サガン鳥栖
	秋山 友作	ヴァンフォーレ甲府	FW	剣持 栞太郎	モンテディオ山形
	西 洸瑠	アビスパ福岡		大橋 海斗	FC岐阜
MF	山本 瑞樹	鹿島アントラーズ		佐々井 大輝	ガンバ大阪
	植松 亮	大宮アルディージャ		齋 尚基	大分トリニータ

U-13 J리그선발 태국캠프 참가 멤버

<스태프>

	氏名	所属
단장/감독	上野山 信行	Jリーグテクニカルダイレクター
코치	北 慎	FC東京
GK코치	斎藤 武志	モンテディオ山形
트레이너	荻堂 博行	平成医療学園専門学校
주무	深野 悦子	Jリーグ

<참가선수>

번호	氏名	클럽	번호	氏名	클럽
GK	中澤 祐哉	ヴァンフォーレ甲府		榎橋 貴士	横浜F・マリノス
	大内 翔弥	セレッソ大阪		出口 大瑠	清水エスパルス
DF	望月 康平	鹿島アントラーズ		宮松 竜士	ジュビロ磐田
	河井 哲太	ガンバ大阪		成瀬 駿平	名古屋グランパス
	宋 勝禹	ヴィッセル神戸		江川 慶城	京都サンガF.C.
	桑原 海人	アビスパ福岡		伊藤 大河	V・ファーレン長崎
MF	五百蔵 悠	大宮アルディージャ	FW	有馬 大勢	東京ヴェルディ
	山田 雄士	柏レイソル		玉川 樹	徳島ヴォルティス
	横田 大祐	川崎フロンターレ		日高 智也	大分トリニータ

chappira.tistory.com

Report

リポート

Gothia Cup 리포트

대회참가로 얻은 「깨달음」 과 「배움」

올해 7월15일부터 20일에 걸쳐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Gothia Cup(고시아컵)에 콘사도레샷포로(U-16)와 U-14 J리그선발이 출전했다. 세계 최대규모로 불리는 국제대회로, 참가한 선수들은 준우승이라는 결과와 함께 많은 것을 흡수했다.

写真提供: 베이스볼·마가진社

78개국에서 3만7000명이 참가

고시아컵은 스웨덴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에서 1975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세계최대 규모의 국제유스대회다. 남자는 U-11~19, 여자는 U-12~19까지로 1살 카테고리 우승을 다투며, 올해는 78개국에서 1615팀, 약3만7000명 선수가 참가했다.

참가팀은 스웨덴과 노르웨이,핀란드등이 많고, 프로그램 아카데미와 지역클럽, 학교팀등 다양하며, 대부분은 오픈참가. 에버튼(잉글랜드), 리버풀레이트(아르헨티나),클럽아메리카(멕시코)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클럽도 출전하고 있다.

참가팀은 스웨덴과 노르웨이,핀란드등이 많고, 프로그램 아카데미와 지역클럽, 학교팀등 다양하며, 대부분은 오픈참가. 에버튼(잉글랜드), 리버풀레이트(아르헨티나),클럽아메리카(멕시코)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클럽도 출전하고 있다.

이 대회에 일본에서 출전한 것이 2012 시즌 최우수육성클럽상을 수상한 콘사도레샷포로(U-16)와 U-14 J리그선발 2팀(J리그 선발은 U-15 카테고리에 출전). 샷포로는 J리그가 작년부터 실시하는 「J리그 아카데미 글로벌챌린지」의 일환으로 파견돼, J리그선발은 해외캠프로서 출전했다.

U-15, 16은 함께 176팀이 참가했다. 44그룹에서 4팀에의한 그룹리그를 해, 2위이상인 상위 토너먼트에 진출. 샷포로, J리그선발 모두 그룹 1위로 돌파해 상위토너먼트 1회전은 시드받았지만, 6일간 9시합, 1일 3경기를 소화하는 힘든 날도 있던 가운데, 함께 준우승을 거뒀다.



개회식이 열린 올레비스타디움. EURO92 결승도 열린 경기장이다.

칭찬을 모은 플레이 스타일

대전상대 수준은 매우 떨어지는 팀도 있었지만, 상위 토너먼트에서는 어느정도 팽팽한 실력이었다. 다만, 일본 2팀은 상대와 비교해 체격과 힘,스피드에서는 열세인 것이 대부분. 특히 J리그 선발은 상대가 1살 위였기 때문에 체격차가 보다 현저했지만, 모두 기술과 판단을 특기로, 착실히 공을 움직이면서 상대수비를 무너뜨려 골을 쫓았다. 그 싸움은 통볼을 많이하는 단순한 축구에 익숙한 지역 관중만아니라, 대회관계자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결승에서는 샷포로는 2점을 리드하면서 우간다 팀의 스피드와 골을 향한 박력에 대응하지못하고 2-3으로 역전패. J리그 선발도 클럽아메리카의 스피드나 힘에 압도돼 1-6으로 패했다. 모두 속상한 마감이었지만, 다양한 특징을 가진 상대와 시합을 거듭하면서, 개인과 팀으로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선수들이 받은 자극은 피치 안에서 멈추지않는다. 숙박지는 도내 학교 교실이 팀마다 할당돼, 선수와 스태프가 「새우잠」을 자면서 공동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숙박지는 물론, 그라운드도 타 팀과

빈틈하게 얼굴을 마주하는 등, 지역 팬과의 교류도 있어, 다양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이런 「일상」을,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크게 성장할 세대로 맞볼수 있는것도, 큰 재산이 됐을 것이다.

「시합은 물론, 공동생활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선수는 인간으로서 폭이 넓어졌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며, 일본에 있었을 때의 「편질」을 맨저같은 느낌입니다」(샷포로의 川口卓哉코지)

「우승이라는 목적을 향해 공동생활을 하며, 「반성하며 행동한다」는 사이클이 몸에 배고,의식 변화를 볼수 있었습니다.」(J리그 선발 上野山信行 단장/감독)

강호팀만이 모인 국제대회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고시아컵은, 다양한 깨달음과 배움을 가져다 준 것 같다.



경기장과의 왕복은 전차로



힘든 일정을 보내면서 샷포로(사진)도 J리그 선발도 준우승이라는 멋진 성적을 거뒀다.



샷포로와 우간다 팀의 결승. 평소는 보기힘든 선수와의 대전을 통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J리그아카데미 글로벌 챌린지」
J리그에 의한 국제선전과 차세대육성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설립해, J리그아카데미의 목표인 「세계에서 활약하는 선수 육성 및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 전년도 J리그 어워즈에서 「최우수육성클럽상」을 수상한 클럽에 대해, 다음해 국제유스대회에 출전권이 주어진다. 2012년에 수상한 콘사도레샷포로 아카데미가 J리그 아카데미 대표로서, 올해 고시아컵에 출전했다.



**스루가은행
침피언십2013 IBARAKI**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코파스다메리카나
왕자결정전

카시마엔트러스가 2연패를 달성

오사코가 브라질 명문을 상대로 헤트트릭 대활약

「스루가은행 침피언십2013 IBARAKI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코파스다메리카나 왕자결정전」이 8월7일, 현립카시마사커스타디움에 2만6202명 관중을 모아 개최돼, 카시마엔트러스가 상파울로FC(브라질)DP 3-2로 승리, 작년에 이어 2연패를 장식했다. 야마자키나비스코컵 승자와, 남미를 대표하는 렘 중 하나인 코파스다메리카나 우승클럽이 대진하는 타이틀매치로, 올해가 6회째 개최. 일본세로서는 4연패로 통산대전 상적을 4승2패로서, 승부차기전 이외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카시마는 클럽 세계 1위에 빛나는 명문을 상대로, 전반에 2점을 리드를 했다. 후반에 들어 쫓겨지만, 주가시간 2분에 FW오사코유야가 결승골을 넣는 극적인 승리. 오사코는 팀 전득점을 올린 대 활약이었다. 상파울로에서 선수로서 활약한 적이 있는 카시마의 트니뉴세레조 감독은 「승리할만한 시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며 만족하는듯한 시험 운영을 되돌아봤다.

대회결과	
제1회	2008년7월30일 오사카나가이스타디움 감바오사카 0-1 아르세날FC(아르헨티나)
제2회	2009년8월5일 오이타큐슈세키유돔 오이타트리니타 1-2 SC 인테르나시오나우(브라질)
제3회	2010년8월4일 국립경기장 FC토쿄 2-2 리가데키토(에콰도르) (PK4-3)
제4회	2011년8월3일 에코바스타디움 주빌로이와타 2-2 인디펜디엔테(아르헨티나) (PK4-2)
제5회	2012년8월1일 현립카시마사커스타디움 카시마엔트러스 2-2 우니베르시다드데칠레(칠레) (PK7-6)
제6회	2013년8월7일 현립카시마사커스타디움 카시마엔트러스 3-2 상파울로FC(브라질)



타고난 득점감각을 발휘해 대활약한 오사코



후반주가시간 결승골로 극적 승리를 장식. 작년 대회에 이어 2연패를 장식한 카시마



카시와레이슬, 준준결승 1차전은 무승부



카시와의 선제골을 넣은 쿠도가 상대선수와 공중경합

AFC챔피언스리그(ACL) 2013 준준결승 1차전 4시합이 8월21일에 아시아각지에서 열려, 일본세로 유일하게 남은 카시와레이슬은, 홈인 히타치카시와축구장에서 알사밤(사우디아라비아)와 1-1로 비겼다. 카시와는 21분 FK에서 흘러나온 공을 FW工藤壮人が 선제골. 그후는 알사밤이 반격으로 전환, 전반 종료직전 44분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은 몇 번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 카시와지만, 결승골은 나오지 않았다.

2차전은 9월18일(수)에 원정인 리아드

에서 열린다. 카시와는 이기면 준결승진출이 결정. 무승부인 경우 2-2이상의 점수라면 원정골수로 진출. 4강이 결정된다. 90분을 끝내 1-1인 시합은 연장전으로 돌입. 0-0이면 원정골수로 탈락, 패한경우에도 탈락한다. 넬싱요감독은 「분석을 해, 오늘보다 좋은 내용으로 경기를 하고싶다」라며 2차전 포부를 말했다. 올시즌 ACL에서는 원정에서 4전4승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남기고있어, 일본세로서는 2009년 나고야그림퍼스 이후 준결승진출이 기대된다.

■ AFC챔피언스리그2013 녹아웃스테이지



J리그 전략회의의 진척보고

올해로 개막 20주년을 맞은 J리그. 이후도 더 나은 성장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내외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게, 성장스토리를 그리고, 적절한 시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J리그는 2012년 10월부터 J리그전략회의를 시작해, 시즌제와 대회포맷등, 이후 발전에 관련된 테마에 대해, 의논을 거듭해왔다. 그 회의 내용. 이후 전개등에 대해 진척상황을 보고한다.

J리그 전략회의 개요

● 개최목적

- J리그의 시즌제를 검토한다.
- J리그의 성장전략을 그리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시즌이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 성장을 위해, 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 주요 검토 테마

- ① J리그 시즌제
- ② 포스트 시즌 방식 (대회 형식)
- ③ 선수 육성
- ④ 기타

● 핵심 성장전략

J리그가 성장하기 위한 포인트는 선수의 더 나은 매력향상과 관전환경 정비로 집약된다.

J리그가 내셔널브랜드로서 현재보다도 국민적 관심을 더 높이는 것이 급선무로, 그를 위한 시책을 구체화하는 것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재원확보에 관해서는 J리그 수입증가와 미디어노출 증가의 쌍방을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한 일안으로서 포스트시즌제를 검토하고 있다.

J리그 · J클럽의 겪없는 논의

J리그 시즌 캘린더에 대해서는 「캘린더 테스크포스」에서 검토를 거듭해왔다. J리그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 인사도 교류하며 의견을 듣고, J클럽의 각방면 담당자와 의논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J리그가 이후, 발전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시즌 캘린더 이외의 테마에 대해서도 의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회의 체제를 변경했다. 이것이 「J리그 전략회의」로, J리그 시즌제 검토, 또한 성장전략 책정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등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회 개최했다.

J리그 전략회의는 J리그, J클럽 실행위원등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J리그 현상분석과 공유, J리그 시즌제, 대회형식, 선수육성등을 테마로 J리그 성장전략에 대한 의논을 해왔다. 그 중 몇 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올해 6,7월 J리그 실행위원회, 이사회에서 삼의는 했다.

더욱이 7월 후반부터는 J클럽의 실행위원을 지역별로 10명씩 모아, 도쿄(2회),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합 4회 「J리그 성장전략에 관한 의견교환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대회형식에 관한 것만 아니라, 클럽간 겪없는 J리그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이 의견교환회 성과에 대해서, J리그의 나카니시다이스케(中西大介) 경기·사

업본부장은 「각 클럽이 개별 이해를 주장하는 것만 아니라, J리그 전체를 생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은 큰 수확. 매우 의미있는 대회였다.」고 말했다.

8월이후는 전략회의와 의견교환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지금까지의 논의의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과 대회 형식을 다시 검토해간다.

시즌 이행 포인트

J리그 전략회의에서는 시즌제에 대해 J리그의 시즌 (개최기간)을 이행하고, 유럽을 중심으로한 세계 주요리그의 시즌에 맞추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거듭해왔다. 현재 J리그는 소위 「준주제」로 3월에 개막해, 12월초까지 기간에 리그전, 리그컵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등 세계 축구주요국에서는 8월에 개막해 다음해 5월에 종료하는 「준주제」가 채용되고 있다.

이미 14~16년 국제축구연맹 (FIFA) 인터내셔널 매치 데이 (이하 IMD)가 결정. 이에 따르면, 9~11월에 1주일에 2일 IMD가 설정돼 있는 주가 있다. IMD 기간은 FIFA 월드컵과 지역연맹 선수권 예선, 국제친선경기가 빠져져, 대표팀 일정이 우선되어, 현행 J리그 시즌에서는 리그전 중반에 IMD에 의해 일정이 중단되는 등, 일정소화상 곤란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AFC 챔피언스리그 (ACL) 시즌이행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캘린더를 결정하는데 있어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외적요인의 주이에 주목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캘린더와 일치시켜, J리그 시즌을 캘린더, 풋볼(경기), stakeholder(팬, 스포터, 스폰서, 중계방송국등)의 이점이 있을 때 이행하는 것을, J리그 실행위원회에서 합의해, 이사회에서 승인된다.

시즌 이행에서 고려해야할 요건에 대해서는 일본축구협회, J리그 및 J클럽이 일체가 돼, 해결을 위한 준비해 가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적설지역을 중심으로 12월, 2월에 리그전을 개최할 수 있는 환경 정비등에 대해서, 지자체등도 협력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핵심이 되는 성장전략 시책의 하나로서는, 리그전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고, 미디어노출과 수입증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회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과 타경기 사례 수집과 분석, 현재 J리그 과제 추출등을 하면서, 최적의 방법, 도입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략회의후에는 앞서말한 것처럼 의견교환회를 개최하고 의논하고, 다시 전략회의를 소집해, 의견교환회에서 나온 제안도 감안해, 13년 9월 실행위원회 이후, 검토를 거듭해간다.

또 성장전략 시책으로서의 대회 방식 이외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의논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테마에 대해서는 2014 시즌부터 수시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진행해간다.

또한, J리그에서는 전략회의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계속 미디어등을 통해서 공개해 간다.

J리그 공식홈페이지에서는, J리그전략회의에 관한 기사와 인터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줄

테스크포스 개최(합15회)

2012년 6~12월

※ J클럽 관계자, 외부인사등에 의한 시즌캘린더에 대해 검토

J리그 전략회의 개최(합9회)

2012년 10월 25일, 11월 20일, 12월 18일, 2013년 1월 22일, 2월 26일, 3월 19일, 4월 16일, 5월 21일, 8월 16일

J리그 성장전략에 관한 의견교환(합4회)

2013년 7월 25일, 30일, 8월 1일, 5일

J리그 20주년 기념, J리그&토쿄필 「하트풀 콘서트 2013」 개최

토쿄필하모니 교향악단이 주최하고, J리그가 협찬한 「하트풀콘서트2013」가 8월15일에 도쿄예술극장콘서트홀에서 개최됐다. 콘서트에서는 축구와 음악 콜라보레이션으로서, 축구팬·서포터에게 익숙한 베르디의 가극 「아이다」의 「개선행진곡」을 비롯한 클래식 명곡이 선보였다.

또 게스트인 川淵三郎 일본축구협회캡틴(최고고문)이 18명의 에스코트키즈(下赤塚フット클럽 선수들)과 손을 잡고, 토쿄필이 연주하는 「J's THEME」에 맞춰 무대에 등장. 사회자 黒柳徹子씨의 토크에서는 「J's THEME」 탄생비화

와 J리그 개막당시의 추억등을 말했다.

또한 川淵캡틴에 대한 감사 선물로 「翼をください」가 연주됐다. 이곡은 일본대표가 FIFA월드컵 프랑스 아시아최종예선에서 고전했을 때, 경기장에서 서포터가 부른 추억의 노래. 연주가 시작되자 캡틴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후 토크 시간에 「축구와 음악의 공통점은 국경을 초월한 용기, 희망,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리듬감. J리그가 토쿄필과 함께 이벤트를 할 기회를 갖기까지 성공했다. 이런 개최를



川淵캡틴과 에스코트키즈가 무에위에 등장

할수있었던 것은 매우 고마운 일」라고 회고했다.

「J리그 백년구상 축구교실」을 시즈오카시 立清水岡초등학교에서 개최

J리그는 J리그 백년구상 파트너인 아사히신문사의 협력으로, 8월13일에 시즈오카시 立清水岡초등학교(静岡市清水区三浦博和校長)에서 학생 등 약 50명이 참가해 「J리그 백년구상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은 J리그가 후원하는 「제27회 전국소년소녀 풀뿌리축구대회」 기간중에, 동교실로서는 처음으로 시즈오카시내에서 개최, 대회 참가자와 보호자도 모였다.

지도에는 J리그 백년구상 메신저인 城彰二씨와 시미즈에스펠스의 육성보급 스

테프, 아이들은 더위에 지지않고, 힘차게 잔디위를 달리며, 전 일본대표인 城씨의 기술에 환호를 보냈다. 스카파!의 J리그 매치데이하이라이트 MC로 익숙한 平畠啓史씨도 게스트로 참가해, Mr.피치와 함께 경기장을 복돋았다. 종료후에는 이 교실 모습을 전하는 아사히신문의 호외도 배포됐다.

J리그 백년구상 축구교실은 J리그 이념인 「잔디 그라운드 확대」를 추진하기위한 활동으로, 2004년에 시작돼, 이번이 13회째 개최. 잔디 운동장을 가진 교실



잔디위에서 城씨와 즐겁게 공을 치는 아이들

에서 J리그가 축구교실등을 함으로써, 전국에 잔디 운동장의 유희함을 소개해, 하 나라도 많은 잔디 광장과 운동장이 늘기를 바라며 행해지고 있다.

J리그 20주년사업 동티모르에 유니폼

J리그는 20주년 기념사업인 국제사회 공헌활동으로서 서포터 참가형에 의한 동티모르에 유니폼 기부를 실시했다. 이 활동에서는 2013년 4월부터 J리그

국제사회공헌활동 서포터참가형에 의한 기부를 실시

오피셜 팬사이트인 「J's GOAL」에서 서포터로부터 유니폼 제공을 모집. 모인 1189매와 축구공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새로운 나라인 동티모르 아이들에게 기부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동티모르

일본문화센터의 협력으로 기부지를 선택해, 바우카우현의 시이살 제3기초교육학교, 아사누노촌의 아이들, 라가지역 고아원 아이들에게 컬러풀 유니폼을 전했다.

J리그에서는 이후에도 세계와 아시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축구환경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축구보급활동을 해간다.



아이들은 즉각, 컬러풀한 유니폼을 입고 환호



기획취지 설명으로 타우르 마탄 루아크 대통령(오른쪽에서 2번째)과 점권, 왼쪽끝은 동티모르 일본문화센터의 高橋이사장

유니폼을 현지에 전한 山下修作 J리그 아시아전략실장 코멘트 「일본전국 서포터 여러분으로부터 전달받은 1189매 유니폼, 옷을 1장도 잃지않고, 무사히 동티모르 아이들에게 전달하루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미소를 만날 수 있어, 축구와 J리그가 가진 힘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습니다. 협력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7월 수상선수 결정**

매달 리그전 (J1,J2)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를 시상하는 「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7월 수상 선수가 결정됐다. J1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GK西川周作, J2가 교토상가F.C.의 MF山瀬功治. 수상한 J1 선수에게는 상금으로 30만엔, J2선수에게는 20만엔을 수여. 축구전문 미디어와 J리그에서 구성된 선고위원회에 의해 선고된다.



히로시마가 7월에 달성한 5연승에 공헌한 활약등이 평가된 西川

**J리그 20주년기회
「J크로니클베스트」 시상**

J리그 20주년을 기념해, 과거 20주년간 「베스트골」 「베스트일레븐」 「베스트매치」를 서포터 투표로 결정한 「J크로니클베스트」에서, 주빌로 이와타에 관련된 베스트 일레븐 시상이 8월3일, 야마하스타디움(이와타)에서 열렸다. 中山雅史, 名波浩, GK川口能活 3명이, J리그의 大東和美 의장에게서 상을 받았다.



오하시의장(왼쪽끝)과 川口, 名波, 中山

J리그에 첫 베트남 선수

J리그로서는 첫 베트남 선수가 되는 FW 레콩빈(27)이, J2 콘사도레샤프로에 입단했다. J리그가 2012년 8월부터 파트너십 협정을 맺은 베트남리그의 승람게안에서 이적. 베트남대표으로도 활약하는 최고의 스타선수다. 파트너십 협정에서는 선수이적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리가 협정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가입희견에서는 「서포터 여러분에게는 스피드와 골 앞에서 움직임의 질을 봤으면한다.」라며 플레이 장점을 어필했다.



30R 에히메FC전에 데뷔

J리그선수로 구성된 SAMURAI BLUE가 동아시아 왕자에

SAMURAI BLUE(일본대표)가 7월20~28일에 한국에서 개최된 EAFF동아시아컵2013 결승대회에서 첫우승을 장식했다. 이 대회의 일본대표는 모두 J클럽에 소속된 선수들로 구성. 첫경기는 중국과 3-3으로 비겼지만, 호주에 3-2, 한국에 2-1로 승리, 2위 중국에 승점 2점차로 타이틀을 획득했다. 또 MF山口螢(세레소오사카)가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혔고, 통산 3득점을 올린 柿谷曜一朗(C 오사카)가 득점왕이 됐다.



J클럽 선수로 구성된 동아시아컵 일본대표. 컵을 들어올리는 것은 주빌로이와타의 駒野

J리그 준가맹 심사결과에 대해

J리그는 8월20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J리그 준가맹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그루자모리오카, 요코하마스포르츠&겔체클럽, 레노파야마구치의 J리그 준가맹을 승인했다. 준가맹이 승인된 클럽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그루자모리오카	
법인명	주식회사 이와테에슬리트클럽
소재지	대표이사장: 臼井 康雄
소속리그	이와테현모리오카시 着町4-20 永卯빌딩2층
연고지	토호쿠사회인축구리그1부
홈경기장	모리오카시
홈경기장	모리오카시남공원구기장

요코하마스포르츠&겔체클럽	
법인명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요코하마스포르츠&겔체클럽(Y.S.C.C.)
소재지	이사장: 吉野 次郎
소속리그	카나자와현요코하마시 中区本牧埠頭3 USS인터내셔널내
연고지	일본풋볼리그(JFL)
홈경기장	요코하마시
홈경기장	미즈자와공원육상경기장/닛파즈미즈자와구기장

레노파야마구치	
법인명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야마구치에슬리트클럽
소재지	이사장: 山根 幹夫
소속리그	야마구치현야마구치시 道場門前1-2-20
연고지	쥬코쿠사회인축구리그
홈경기장	야마구치시를 중심으로한 전현
홈경기장	이신백년기념공원육상경기장

[참고]현재 J리그 준가맹클럽
SC사카미하라(2010년2월~)/카타마레사누키(2011년2월~)/AC나가노팔에이로(2012년7월~)/FC마치다벨리아(2013년1월~:J2에서 JFL 강등클럽)/부라우부릿츠 이키타(2013년2월~)/스에겐카나자와(2013년2월~)
준가맹신청을 한 클럽 심사상황, J3에 대해서는 J리그홈페이지에서 수시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은 여기(<http://j3.j-league.or.jp/>)를 참고하십시오.

토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지원워크를 공동개최

J리그는 8월20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토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지원워크」(주최:토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지원워크 실행위원회)를 공동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벤트에서는 8월31일(토)~9월1일(일)에 2020년 토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토쿄에 모여, 유치를 기념하는 워크를 실시한다(시작지점:국립경기장)/ 또 1964년 제18회 토쿄올림픽을 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語り部이야기꾼」이 돼, 2020년 올림픽대표선수가 되는 초중학생과 함께 걸으면서 그 감동을 전승하고, 국민이 하나가 돼 유치를 바라는 모습을 세계에 전한다.

실행위원 선임에 대해

J리그는 8월20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로아소쿠마모토의 실행위원을 池谷友良씨에서 永田求(나가타모토무)씨로 변경하는 결 승인했다.

클럽명	실행위원	
	변경전	변경후
로아소 쿠마모토	池谷友良 주식회사에슬리트클럽 쿠마모토대표이사장	永田求 주식회사에슬리트클럽 쿠마모토대표이사회회장겸사장

정정 알림

J리그 207호 8페이지 「J리그 준가맹을 신청한 13클럽」 표지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리며 정정합니다.

FC류큐 법인명과 연고지

(주)류큐풋볼클럽→류큐풋볼리그(주)

나하시,오케나와시를 중심으로한 전현→ 正)오케나와시를 중심으로한 전현

J1리그전 중단기간에 국제친선시합

J클럽이 잉글랜드 명문등과 대전

J1리그전이 7월17일 17R 종료후부터 31일 18R로 재개하기까지 중단기간, 해외에서 팀이 방일한 J클럽과 국제친선시합을 했다. 일본인 선수가 소속된 잉글랜드 명문 클럽도 있어, 팬·서포터의 관심이 높았다.

요코하마F·마리노스, 세레소오사마는 2007년부터 10년의 중단까지 C오사카에서 활약한 MF카가와신지를 보유한 맨체스터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대전했다. 요코하마FM은 강호를 상대로 3-2로 승리, C오사카는 시합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허용해 아쉽게도 2-2 무승부로, J클럽이 매우 건투했다. 카가와는 친정 C오사카와의전에서 1골을 넣는등, 팬,서포터를 기쁘게했다.

한편, 나고야그램퍼스,우라와레즈는 잉글랜드 아스널을 맞이했다. 아스널은 1995년 산토리시지리에서 96년까지 나고야그램퍼스에이트(현 나고야그램퍼스)를 지휘한 뱁거감독이 이끄는 팀. 나고야는 뱁거감독 아래서 선수로서 활약한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지휘를 맡아 「사제대결」로서 주목 받았다. 시합은 아스널이 3-1 승리. 아스

널에 소속된 아이치현 출신의 MF 미야이 치료도 PK로 1골을 넣었다. 우라와는 중반에 결승골을 허용해 1-2로 석패했다.

이외 사간토스는 시드니FC(호주)를 맞아 2-1로 승리. 시드니의 전이탈리아FW, 알렉산드로 델피에로는 작년 7월 「동일본 대지진 부흥지원 2012 J리그 스페셜매치」에 이어 방일했다. 또 FC토요는 스페인 2부리그의 CE사바델과 대전해 2-2 무승부, F토요에서 기간한정이적인 MF田邊草民도 사바델 일원으로서 출전해, 1골을 넣는 활약을 보였다.

chappira.tistory.com



C오사카는 강호를 상대로 아깝게도 무승부. 이전 팀동료인 齋川(우)를 마크하는 藤本(7월26일,오사카나가이스타디움)



요코하마FM은 藤田(왼쪽에서 3번째가 87분에 천금의 결승골을 넣었다.(7월23일,닛산스타디움)



아스널 공세를 막는 나고야 수비진. 중앙은 宮市(7월22일,토요타스타디움)



스타선수가 모인 아스널을 상대로 중원에서 분투한 柏木(우). 왼쪽은 체코대표 로시츠키(7월26일,사이타마스타디움2002)



이전 감독,선수로서 함께 나고야를 지명한 뱁거감독(우)과 스토이코비치감독



토스의 高橋(좌)와 델피에로와 경합(7월24일,베스타메니타스타디움)



원본다운
클릭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08/vo10208.pdf>